

중소기업 판로확대 방안에 머리 맞대

중기중앙회, 전북지방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정원)는 지난 6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전북지역 공공구매관련 중소기업 업체대표 이사장과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수천 전북지방조달청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 등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아스콘 기초급액 산정시 사정용 상향 ▲MAS 2단계 경쟁 후 수량감소·취소시 조달업체 보호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활성화 ▲협상에 의한 계약 지양 ▲납품기한 지정방식 변경 등을 건의했다.

박수천 청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

업이 조달시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구매력을 통해 판로 확대, 나아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도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김정원 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은 "내수부진과 일본의 수출규제,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우수 단체표준제품 우선 구매제도, 소액수의계약 조달추천제도 등이 지방 공공기관에서 널리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6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박수천 전북지방조달청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북은행,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여행권'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6일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배인재)와 함께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여행권'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배인재 회장, 덕진노인복지관 채현욱 복지부장, 남원 스마일빌 김희숙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열악한 근무환경, 과도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속에서도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전북도내 사회복지사들에게 일대 보상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특히, 임용택 전북은행장은 "2018 사회복지사 힐링데이에서 사회복지사들과 함께했던 공감토크 중에 선정된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지원 사업을 이날 실시해 눈길을 끌었고, 대상자는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공개모집으로 최종 2명을 선정해 의미를 더했다.

임용택 은행장은 "사회복지사들에게 힐링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전북은행은 도내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사회복지사 힐링데이 실시 등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실천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윤상 기자

"온누리상품권 이제 올원뱅크로 구매하세요"

전북농협, 모바일 서비스 제공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 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제로페이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서비스'를 4일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제로페이가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서비스로 NH농협은행 간편결제 앱인 올원뱅크에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구매 후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모바일상품권 출시로 소비자, 상인 모두 온누리상품권 구매·환전을 위한 은행 방문이 불필요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남은 잔액 환불도 앱 상에서 환급처리가 가능하며 이용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특별판매가 진행중이다. 개인이 구매할 경우 총 발행규모 2,000억원 한도 소진시까지 10%의 특별할인이 적용되며, 매일

50만원 한도로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은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결제 앱으로 활용하면 결제가 이루어진다.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은 전통신장통(www.sjangtong.or.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근 전북본부장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올원뱅크를 통해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이용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추석 한 주 앞두고, 성수품 물가 안정세

추석을 약 일주일 앞두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사장 이병호)가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신장은 22만5,859원, 대형유통업체는 31만3,879원으로 나타나 전주 대비 각각 0.7% 하락, 1.3%

상승하여 안정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aT가 지난 8월 21일, 8월 28일에 이어 9월 4일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하여 전국 19개 지역의 18개 전통신장과 27개 대형유통업

체에서 실시한 결과이다.

전통신장 기준으로 지난주와 비교하면 배추·무 등 채소류는 그 동안 낮았던 시세를 회복하며 가격이 소폭 상승했고 사과·배 등 과일류는 출하 물량이 늘어나 가격이 하락했으며, 쌀 및 쌀가공품은 보험세를 유지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 가을맞이 온라인 프로모션 참여업체 모집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온라인시장 판로확대를 위하여 '2019 가을맞이 온라인 프로모션'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본 사업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의 위메프, G마켓, 11번가, 우체국 등 대형 유통채널에 신규업체 입점, 상품등록,

가격할인, 광고·홍보 등 온라인 판매망 진출을 돕는 지원사업이다.

이번 가을맞이 온라인 프로모션은 전북 소재의 우수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모집 품목은 가을 제철식품 및 생활용품에 대상으로 선정한다. 프로모션 행사 기간은 ▲우체국 9. 23.~10. 20. ▲11번가, G마

켓 9. 30.~10. 31. ▲위메프 10. 14~11. 15. 등 각 채널별 일정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제품 선정은 각 채널의 MD가 제품의 차별성과 가격·품질 경쟁력을 통해 선정한다.

현재 참가업체를 모집 중에 있으며 모집기간은 오는 16일(월)까지이다. 경진원 홈페이지(www.tba.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문의는 온라인팀(063-711-2031)으로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생활지원상담을 원스톱으로!

LH전북본부 주거복지통합지원센터, 생활상담서비스 주택금융·일자리상담 등 이용고객 90%이상 '만족'

LH전북본부(본부장 임정수)는 사육 별관에 조성된 주거복지통합지원센터 내방고객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객 불편사항 개선 및 상담프로그램 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LH전북본부 별관에 조성된 주거복지통합지원센터는 LH 주거상담센터인 '마이홈'의 정보제공 기능을 고도화하고, 지역 내 복지정보 전달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원스톱 생활지원서비스를 센터가 개소한 2018년 4월 이후 시행중이다.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LH전북본부와 협약을 체결한 전주시 보건소,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전북지방법무사회 전주지부, 우리은행,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주원주지사, 전북노인일자리센터가 요일별로 진행하는 무료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와 스마트오피스 공간이 설치되어 있어 정부 민원문

서를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PC, 팩스, 복사기, 스캐너 무료사용 및 휴대폰 충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 LH전북본부가 지난 4개월간 상담센터 방문객을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생활지원서비스 이용고객 93%가 상담 등 서비스 수준에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익명성 보장을 위한 프라이빗 상담창구 개설 및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홍보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센터 이용고객의 68%는 여성 고객이며, 상담고객의 43%가 50대 이상 고객으로 분석되었으나, 20~30대 비중도 4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 상담이 전체 상담 비율의 35%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건강상담 25%, 일자리상담 22%로 조사되었다. 센터 서비스 환경과 서비스 과정, 결과분야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 부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윤상 기자

신협, 올 하반기 신입직원 전국 공동채용

신협이 오늘 사전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2019년 하반기 신협 신입직원 공동채용을 실시한다.

이번 신협 신입직원채용은 공동채용으로, 2015년 시행실시 이후 5년 연속 실시하며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매년 청년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따뜻한 금융의 모델,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선두주자인 신협에서 근무할 참신한 신입 직원을 전국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신협은 매년 젊은 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사인 '대학생 신협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동채용 서류전형면제 특전 혜택을 제공하는 등 취업난이 극심한 현실에서 꾸준히 대학생들에게 신협으로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실천하고 있다.

올 하반기 신입직원 공동채용규모는 ▲19개 신협, ▲33명 내외로, 채용지역은 ▲서울, ▲부산/경남, ▲인천/경기,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총 8개 지역으로 ▲예금, 대출업무 등 신협 금융사업무 전반을 담당할 일반직을 채용한다.

공동채용제도는 신협중앙회가 채용

계획이 있는 신협을 대상으로 채용신청서를 접수 받은 후 채용공고, 서류전형, 필기전형을 지원하고, 모집신청에서는 면접 및 최종 합격자, 근무조건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일반상식 및 선택과목(경영학, 경제학, 민법, 회계학 중 택1)), ▲면접전형(신체검사 등)순으로 진행된다. 모집신청 소재 지역 인재를 우대해 채용할 예정이며 연령, 학력, 전공, 학점, 어학점수 제한은 없다.

오늘부터 사전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16~20일 취업포털 사람인 홈페이지(http://cu.saramin.co.kr)를 통해 지원서 접수를 실시한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은 27일, ▲필기전형은 10월 5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각 고사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이후 모집 신협별 최종 면접절차를 거쳐 10월 31일에 최종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채용이 2019년 상반기 공동채용에 비해 달라진 점은 지원자가 필기전형 응시 지역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